



누군가가 섭취하는 음식은 그의 정신과 성격을 담았다.

육식동물은 도전적이고, 초식동물은 온순하다.

이 논리로 보면

차를 즐기고

그 참맛을 안다는 사람들은 영혼의 깊이가 남다르다.

입으로 마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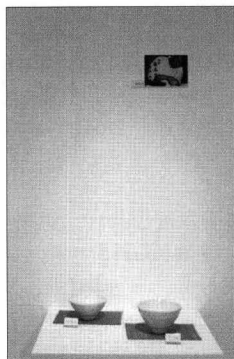
온 정신으로 우려내야 그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차는

맛, 향기, 색깔, 기운 등을 통해 상생과 공존의 정신을 가르친다.

《한국인과 차 그 사색의 열린 공간》은 정신의 허기짐을 채워주는 한국 차문화의 본질에 깊숙이 다가가는 책.

자극없이 은은하고 깊은 차의 참세계가 한권의 책에 깊숙이 스며들게 된 사연을

다른세상 황성혜 주관을 통해 들어보았다.



## 깊고 청아한

## 차의 참세계, 책 안에 스며든

## 사연

사찰을 담으려다 한국차의 참맛에 매료되다

불가의 스님들이 일상적으로 차를 마신다는 데서 ‘차 다茶’ 자를 넣은 ‘다반사 茶飯事’는 예사로운 일, 흔한 일을 뜻하는 말. 필자와 편집자가 특정 주제를 논하려고 만났다가 새로운 아이টে임을 건져내는 일은 출판계에서 그야말로 다반사다. 《한국인과 차 그 사색의 열린 공간》도 이 경우에 속한다. 본래 한국 사찰문화 관련 책을 출간하기 위해 정동주 씨를 찾았던 다른세상 황성혜 주관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차와 도자 문화에 빠져 지냈던 정씨의 관심사를 읽고 귀가 솔깃해졌다.

“정 선생님께서 오랜 시간동안 불교 문화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차에 깊은 조예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또 그간 직접 차를 만들기도 하셨구요. 말씀을 듣고 보니 차는 음식으로서도 의미를 갖지만 약, 정신으로서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철학적인 음료였죠. 결국 기존 기획 아이টে임은 잠시 보류해 놓고 차 이야기를 먼저해보자고 나섰습니다.”

차와 도자문화를 둘러싼 비평적 연구를 계속해 온 정동주 씨는 일제시대와 6·25 때 흩어진 차문화 자료들을 꾸준히 모아왔다. 황 주간에 따르면 기존 차 관련서에서 발견한 적 없는 이례적인 자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특히 이 자료들은 한국의 현대 찻그릇 장인들의 세계를 두루 살펴본 ‘한국의 찻그릇 세계’ 꼭지에서 잘 정리됐다. 꼭지의 첫 장을 연 토우土偶 김종희 선생은 이미 2000년에 작고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재조명 작업이 필요했던 인물. 또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스님처럼 참선으로 그릇을 빚는 천한봉 선생, 김운태 선생을 비롯한 찻그릇 장인들의 세계 역시 본인의 육성을 토대로 정리한 것들이라 그 귀함이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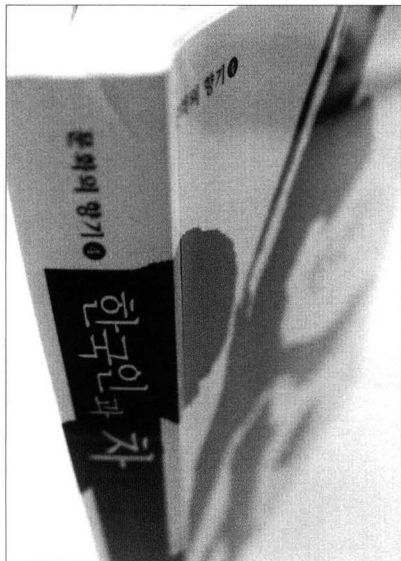
현대 찻그릇 세계 조망할 9인의 장인을 한자리에

“정 선생님께서 불교를 공부하면서 만났던 약 200명의 찻그릇 장인 중 현대 찻그릇 문화를 조망할 수 있는 아홉 분을 직접 선정하셨어요. 장인이 된 사연, 작품세계,

세대가 각기 다른 작가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지요.”

소개된 찻그릇 장인들은 조선시대, 일제시대 등 여러 난관을 거친 후 단절됐던 한국 찻그릇 역사를 다시 쓰는 인물들. 그 중에서도 작품 세계와 철학이 뚜렷한 장인들이다. 정동주 씨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차문화는 박복한 역사를 거쳐 왔다. 그 우수함이 이루어 말할 데 없었으니 일제시대 총독부는 우리의 차문화를 일본의 차문화로 바꾸기 시작했고, 전통 사기장들은 더 이상 한국 그릇을 만들지 못했다. 찻그릇 안에는 민족 얼이 숨겨 있다는 이유로 총독부측이 한국의 전통 그릇과 사기장들이 소멸되길 바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황 주관은 차의 세계가 인간을 청아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로 이끄는 찻그릇은 물리적 그릇이라 부를 수 없다고 말한다. 예술적 가치도 확보돼야 하지만 그 본질 속엔 아름다움에 귀의하는 우리를 잘 안내할 안내자로서의 책임까지 담겨야 한다. 즉 찻그릇 장인은 다도문화의 중심인물이



1 3 4 5  
2



- 1 《한국인과 차 그 사색의 열린 공간》에 대하여 설명하는 다른세상 황상혜 주간.  
3 《한국인과 차 그 사색의 열린 공간》 정동주 지음 | 다른세상 | 480쪽 | 값 30,000원  
2 4 5 인사동 관훈갤러리에서 열렸던 찻그릇 전시

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다. 결국 다른세상측은 그 중요성을 책으로 알리다 못해 장인 9인을 직접 한자리에 초대했고, 책 출간의 일환으로 <한국인과 차 그 사색의 열린 공간> 전시를 기획했다.

“전시도 이 책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실제 전시를 통해 미담도 남기고 차문화도 알려보자고 기획한 전시였지요. 아홉 분의 작품을 인사동 관훈갤러리에서 소개했는데 책 준비만큼 힘든 과정이었지만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차는 만물간의 관계와 공생을 강조하는데 장인들은 그런 철학을 몸과 마음에 담고 계시는 분들이셨지요.”

출간 이후의 또 다른 작업, 차문화 알림이

황 주간은 “이제 웬만한 찻그릇은 눈에 안 들어온다”고 말하면서 장인 9인의 찻그릇은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 아름다웠다고 말한다. 그런 이유로 표지에 들어갈 다기를 고르는 데도 적잖은 고민을 했다.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한 작품을 골라놓으면 다른 작품들이 마음에 걸렸다. 결국 표지에는 서예가 손창락 선

생의 ‘다茶(차)’ 서체를 담기로 했다. ‘차茶’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하게 된다는 정동주 선생의 설명을 대입하면 표지에는 아홉 명 장인들의 작품이 모두 담긴 셈이다.

한편 이 책이 나오는 동안 저자인 정동주 씨는 명맥이 끊어졌던 제다방법을 연구했고, 경북 사천에 동다헌東茶軒이라는 기와형 황토집을 지어 실제 다도의 정신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중이다.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걸 느끼게 해 준 책이지요. 찻그릇도 그렇지만 일본, 중국에 가면 우리 초가집 구조를 본뜬 차실이 무척 많습니다. 입구에 자연석을 두거나, 집 안에 흙을 바른다거나 방 중간에 땅을 파서 화로를 놓는 등 우리의 차실문화가 그대로 일본, 중국에 전파된 것이죠. 일본이나 중국에선 그런 차실이 자신들의 문화라고 소개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황 주간은 《한국인과 차 그 사색의 열린 공간》을 “부지런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를 남겨준 책”이라고 소개한다. 중국차, 일본차 등 수입차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잊혀지고 빼앗겼던 한국의 차문

화를 다시 알리고 되찾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 한국관에서 차 관련 전시를 해보고 싶은 바람이 생겼어요. 인사동만 지나가도 아시겠지만 서양 사람들은 동양차와 찻그릇에 무한한 관심을 가지거든요. 책을 편집, 제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책 홍보에 앞서 진정한 차문화를 알리는 일까지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불가에서는 살생을 금한다는 의미에서 흙바루를 사용한다. 여기엔 지구 온 물이 우리의 친구요, 나 자신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다기에 담긴 차도 마찬가지다. 단 하나의 재료로 만들어졌으면서 그 안에 음식이 지닐 향, 색깔, 맛, 영양 모든 것을 담은 차는 ‘하나이면서 모든 것’으로 불린다. 이기심과 개인주의로 각박해지는 세상. 《한국인과 차 그 사색의 열린 공간》은 한국 차문화를 둘러보며 넋지시 묻고 있다. “차 한 잔 나누자”고. 이는 곧 나를 닮은 사람들, 세상을 한번쯤 돌아보자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서문**

취재 | 김창연기자 · 사진 | 박신우기자